**행0609(2) Note**

◆해방노예 解放奴隸 / freedman

(예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의 책에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메모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노예였다가 자유의 몸이 된 사람.

고대 아테네에서 해방노예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몇몇 사람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막강한 지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그러나 헬레니즘 시대에는 몇몇 그리스 국가에서 과거 노예신분이었던 사람들에 대해 별도의 규정과 제한을 두는 법률을 제정한 일이 있었다.

그리스인들에게 시민권은 세습적인 특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해방노예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의 법률에 따르면 해방노예는 완전한 시민권을 누린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시민이 될 수 있었다.

중세의 스페인에서는 해방될 가망이 거의 없는 정부와 교회 소유의 노예들이 일반 노예들과는 달리 일정한 특권을 누렸다.

많은 제약을 받는 해방노예들은 노예에 비해 처지가 별로 나을 것이 없었다.

카롤링거 왕조시대에는 해방노예의 후손들에 대해 3세대가 경과해야 자유민과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노예는 대개 평생 존속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노예제 사회였던 고대 로마로부터 현대(노예제도가 사라지기 이전)에 이르기까지 노예의 해방이라는 것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방된 노예들을 해방노예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해방노예의 계급은 해당된 노예 자신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를 의미했지만,

황제 시대에는 해방된 노예 자신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해방노예는 해방한 주인의 이름과 성을 붙이고 자신의 이름을 가족명(family name)으로서 사용했습니다.

키케로의 속기자로서 알려져 있는 노예 테로가 유명합니다.

해방 후에도 해방노예는 통상에서 주인이나 그 일가와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해방된 노예는 주인을 파트로누스(후견인)로 하는 클리엔테스(귀족에게 예속된 신분)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해방노예가 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1.주인의 유서에 의해 해방되는 경우.

2.생전에 주인에 의해 해방되는 경우

3.노예 자신이 주인에게 자유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경우

해방된 노예에게는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해방노예는 황제 시대 로마 전 인구의 5%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황제로 즉위하기까지 기사 계급에 머물렀고, 원로원 계급에 친구나 협력자를 얻을 수 없었던 클라우디우스는 통치에 해방노예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의 해방노예 중용은 로마 제정의 관료제를 진행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현제 시대가 되자 공적으로 관료를 공급하는 루트가 확보되었으므로, 해방노예가 통치의 중요한 임무를 맡는 것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집트 장관으로는 해방노예만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 황제의 사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집트는 시칠리아와 같은 곡창지대로서 로마의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성을 인해 통치자가 될 권위를 가진 귀족이 이집트를 장악하면 제위 찬탈의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